

서론



서론

1. 저자

말라기 [히] 말라키 [Malaki] 는 “나의 사자(使者) ” 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여호와와의 사자” 를 의미하는 말라키야(Malakiyah)의 단축형인 것 같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수가 기억나지 않을 무렵, 성전이 복구되어 예배가 한동안 실시되고 있었을 때에 말라기가 예언했다는 것은 이 책의 내용으로 보아 명백하다. 말라기가 정죄한 병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바사의 궁전에 가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 (느 13:6). 따라서 말라기서는 BC 425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이 책의 연대는 느헤미야 시대나 그 직후로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주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그들의 실패가 말라기 시대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PK, 705).

유수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스가랴의 감동적인 예언과는 대조적으로 1세기후의 말라기의 예언은 점차적인 영적 쇠퇴의 우울한 장면을 제시한다. 분명히 유배자들은 그들이 잡혀갔던 땅

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나 마음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먼 나라에 남아 있었다. 사실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멸시하고 종교에 싫증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불충성에 지치셨고 그들의 예배와 봉사를 전혀 받으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과거 경험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의 요구사항으로 돌아오도록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말라기에게 위탁하셨다” (PK, 705).

여호와께서는 8번이나 백성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조목, 한 조목, 그들의 배교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은혜롭고 참을성 있게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8번을 조금도 불완전하지 않다고 건방지게 부인하였다. 과거의 잘못들을 시인하도록 유도하려는 하나님의 참을성 있는 노력과,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격렬한 거부가 짝을 이뤄 이 책의 주제가 된다(1:2,6,7; 2:14~16,17; 3:7,8,13~15).

8개의 수사 의문문, 혹은 질의-응답문 (Question and Answer Session)

[1] 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 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재치 있게 시작하시지만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냉담하게 항의한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응수하신다.

[2] 1: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받아 마땅한 공경을 이스라엘이 그분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그분을 멸시한다고 책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둔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1: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신성한 성전 의식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사례로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그분을 멸시하는 증거라고 제시하신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거나"속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일에 완전히 눈이 멀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지니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딤후3:5)은 전혀 알지 못한다.

[4] 2:14~16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퀘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무의미한 종교의식의 반복이 무가치하다고 길게 설명하시면서 더 이상 그들의 제물을 돌아보거나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선언하신다(2:13). 감정이 상한 척하면서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경배와 봉사를 무시하시는지를 뻔뻔스럽게 따진다(2:14).

하나님께서서는 참을성 있게 종교원칙이 일상생활의 실제 문제에 적용되지 않을 때 그 종교 형식은 무가치함을 설명하신다(2:14~16).

[5] 2:17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와 눈이 선히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위선적으로 경건한 척하는데 염증을 내신다. 백성은 하나님의 책망이 부당하며 불공정하다고 둘러말하며 자신들을 변호한다. 경배할 때에 그들이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일상생활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그들은 악이 실제로 별문제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악을 묵과하고 자기들이 종교의 형식을 준수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암시한다(2:1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고하게 회개치 않음은 필연적으로 최후의 심판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하신다(3:1~6).

[6] 3: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도했다고 책망하시지만 엄한 책망에는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은혜로운 초청이 따른다. 그러나 백성은

어쨌든 자기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엄격히 순종하는 길에서 떠났다는 생각에 놀람과 분노를 표시한다.

[7]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분을 떠났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로서 그들의 도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적질을 책망하시지만 그들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무언의 인정이다(3:8~12).

[8] 3:13~15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 주시고자 그분께서 연속적으로 시도하신 노력을 그들이 철면피하게 반박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을 고발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한 말이 진실도 아니고 합당치도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인에 대해 문제의 핵심, 곧 돈이라면 무슨 것이든 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을 지적함으로써 대응하신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며 이익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섬겨왔다. 전혀 치료가 불가능할 만큼 도전적인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울 각오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말하자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은 합당하지 않다고 경솔하게 확신하는 것이다(3:14,15).

3:16~18과 4:2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소수의 충실한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증하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최후의 심판 날에 그들이 당할 운명을 경고하신다(4:1~3).

말라기의 기별은 여호와와 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그분의 면류관에 달릴 "특별한 소유"를 준비하고, 심판 날에 그들을 보존하시는 일을 위해 그분을 도울 한 사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증으로 끝을 맺는다(4:4~6).

말라기의 기별은 특히 오늘날의 교회에 적절하며, 계 3:14~22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비교할 만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말라기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에 대해 전혀 무감각 했으며 "부족한 것이 없다"(계 3:17)고 느꼈다. 그들은 하늘 보화에 "가난했고" 자기 잘못에 "눈먼" 상태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으로 옷 입지 못했거나 "벌거벗었다" (계 3:17). 비유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마 22:11~13)처럼 그들은 그분의 의의 옷을 떨치고, 자기 자신들의 도덕적인 누더기에 매우 만족하면서 우주의 왕 앞에서 있었다.

3. 개요

I.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보답하지도 않음(1:1~6)

- A. 서언 1:1
- B.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1:2~5)
- C.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멸시함(1:6)

II. 신앙생활의 타락한 상태(1:7~2:17)

- A.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함(1:7~10)
- B.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1:11,12)
- C.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함(1:13~2:13)

D. 종교의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함(2:14~2:17)

III. 심판을 받도록 소환됨(3:1~15)

A.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3:1~6)

B.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대한 특별 기소(3:7~12)

C.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한 기소(3:13~15)

IV. 심판의 날을 위한 준비(3:16~4:6)

A.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3:16,17)

B.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의 멸절(3:18~4:1,3)

C.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증됨
(4:2,4~6)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